



新世纪高职高专
韩国语类课程规划教材

韩国概况

新世纪高职高专教材编委会组编

主 编 金 建

主 审 (韩) 洪 镜 子



大连理工大学出版社



新世纪

新世纪高职高专
韩国语类课程规划教材

韩国概况

新世纪高职高专教材编委会组编

主 编 金 建 副主编 朴吉玉 李泽华
编 委 崔成国 刘 艳 刘福莲 康永玉
(韩)朴相洙 (韩)曹允瑛
主 审 (韩)洪镜子

大连理工大学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概况/金建主编. —大连: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08.7

新世纪高职高专韩国语类课程规划教材

ISBN 978-7-5611-4151-9

I. 韩… II. 金… III. ①朝鲜语—阅读教学—高等学校:
技术学校—教材 ②韩国—概况 IV. H559.4:K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8)第 114730 号

大连理工大学出版社出版

地址:大连市软件园路 80 号 邮政编码:116023

发行:0411-84708842 邮购:0411-84703636 传真:0411-84701466

E-mail: dutp@dutp.cn URL: <http://www.dutp.cn>

大连图腾彩色印刷有限公司印刷

大连理工大学出版社发行

幅面尺寸:185mm×260mm

印张:7

字数:150 千字

2008 年 7 月第 1 版

2008 年 7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李 岩 葛小溪

责任校对:鲁 宁

封面设计:张 莹

ISBN 978-7-5611-4151-9

定 价:18.00 元

总序

我们正在推出的高职高专韩国语类课程规划教材,是大连理工大学出版社高职教育出版中心推动的新世纪高职高专教材编委会又一新的标志性系列教材品种。

大连理工大学出版社高职教育出版中心,是一个目标远大、追求卓越,并且肯于为自己的追求满腔热忱地付出长期坚忍不拔的努力的事业型出版者团队。

中心自2001年成立之日起,即以推动高职高专教育发展为己任,通过推动高职高专教材建设来推动高职高专教育的发展是我们的不懈追求。一直以来,我们始终走在高职高专教材建设认识与发展的前列,所取得的高职高专教材建设成就有目共睹。

我们之所以有如此远大的目标追求,主要是基于我们对于高职高专教育发展的前瞻性认识。因为在我们看来,高职教育的崛起,不仅是我国高等教育变革20多年来最重要的成果,而且其最终必将会改变我国高等教育发展的方向。其所以如此,乃是由于我们深信:一切所学,皆为所用。在一个理性运行的社会状态下,高等教育培养模式必然会合理地分为培养应用型人才(面向社会发展的现实需要)的高等教育和培养研究型人才(面向社会发展的未来需要)的高等教育,而培养应用型人才的高等教育(应用型中专教育、高专教育、本科教育、研究生教育)最终必将会成为我国高等教育人才培养模式的主流形式。把握住这样一个历史机遇,实现一个出版者的人生价值与事业目标,并为之付出满腔热忱与全部努力,是值得的。

不仅如此,我们为实现这一事业目标所付出的努力及其所完成的创新建树也同样不同凡响。为了使我们的理想目标得以实现,从而使我们的努力能够在高职教育发展进程中起到推进作用,我们探索出了能够将每一种教材都做成经典范本的可操作性运作思路,创新了教材建设理念,并以强大的意志力将其贯彻于每一种教材建设过程的始终;为了使我们推出的富有特色的高职高专教材最大限度地为广大高职高专院校所认识,所接受,并在高职高专教学实践中发挥推动作用,我们创新了足以领导潮流的市场运行模式,构造了功能强大、覆盖全国,且具有领先优势的市场推广体系,教材的品牌影响力正在稳步形成;为了构造推动教材建设的强大动力基础,我们在公有制体制框架下完成了体制与管理制度的创新,并在此基础上,提出了一体化战略合作的创造性构想,并借以整合一切与教材建设实现相关的力量,即出版者力量、作者力量、市场推动力量、终端用户力量,使之成为推动我们共同事业发展的合力。可以说,近年来在教材建设领域发生的所有具有本质意义的重大创新,都与我们的努力息息相关。

自编委会成立以来,我们不仅成功地推出了包括公共英语类、商务英语类、日语类在内的数百种特色鲜明的高职高专教材,而且形成了日益显著的教材品牌化建设的领先优势,彰显了我们在高职高专教材建设领域的非凡创造力。这一点,可以由我们的核心竞争力得以说明。我们知道,作为市场优势竞争力持续产生源泉的核心竞争力,必须同时具备两个不可或缺的条件,一是必须具有领先的优越性;二是必须具有不可复制性。我们核心竞争力的三个相互关联、不可分割的组成部分如下:

- (1) 领先所有竞争对手的理念创新并且能将其有效贯彻于每一种教材建设过程的统一意志;
- (2) 编委会的强大感召力与凝聚力;
- (3) 万众一心奔向共同事业目标的和谐向上、高效运行的团队。

从市场运行结果来看,我们所创造的持续、快速增长的出版奇迹及其强大发展后势,说明了市场对我们的认可与接受程度;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高职高专类)入选种数全国第七、国家级精品教材(高职高专类)入选种数全国第三的排名,可以作为我们教材特色与质量正在受到普遍认可,教材的品牌化建设正在走向成熟的官方佐证。考虑到我们的教材品种还相对较少(许多出版社拥有数千品种,而我们仅有几百种)、市场影响力形成相对滞后(许多出版社从专科教材做起,拥有多达几十年市场培育的历史,而我们仅有几年全国市场推进的影响力)等因素,可以推断,我们高职教材的质量与特色正在从总体意义上显现出全国领先的相对优势。

我们深信,一个能如此追求、如此努力,同时又能如此在教材建设领域拥有从运作思路到运作模式全面创新的领先优势的团队——我们的出版者团队和作者团队,以及我们所拥有的在公共英语类、商务英语类、日语类等教材建设过程中累积起来的成功经验,只要假以时日,我们就一定会在高职高专韩国语类系列教材建设过程中取得令所有相关高职高专教学单位值得期待的卓越成就。我们满腔热忱地持久努力的结果,一定会在高职高专韩国语专业教学及其人才培养过程中起到积极的推进作用。

我们将不负众望!

大连理工大学出版社高职教育出版中心

新世纪高职高专教材编委会

2008年4月

前言

《韩国概况》是新世纪高职高专教材编委会组编的韩国语类课程规划教材之一。本教材共一册。

编写《韩国概况》的目的是为了使学习韩国语的学习者能够对韩国的国家概况有所了解,以便对学习韩国语有所帮助。

《韩国概况》共分为9章35节,对韩国进行了全方位的介绍,包括天文地理、政治、经济、文化、教育、体育、宗教及风土人情、名胜古迹、旅游观光等方面,尽力做到了用最简捷的语言进行介绍,并插入大量的图片以便达到直观的效果。而且为了便于韩国语初学者能够更加准确地理解,在本书的第二部分附有韩国语概况的中文大意及补充说明。

在编写过程中为了达到以下特色尽了最大的努力:

1. 图文并茂,简捷明了。在插入大量图片增加直观视觉的基础上用最简明的语言进行编写,以便学生容易理解与接受。

2. 全面介绍,详略结合,重点突出。采取对重点部分进行详细描述与一般性陈述相结合的方法对韩国进行全方位介绍,以便学生对韩国有全面的了解。

3. 材料最新。本书中收集的内容为最新的材料。

4. 每章都设有思考题,便于学生掌握每章的重点与难点。

5. 第二部分附有韩国概况的中文大意及补充说明,以便帮助学习者能够准确地理解与把握教材的内容。

《韩国概况》由金建任主编,朴吉玉、李泽华任副主编,崔成国、刘艳、刘福莲、康永玉、朴相洙(韩)、曹允瑛(韩)参与了编写,洪镜子(韩)任主审。具体分工如下:刘艳(第一章第一、二、三节),康永玉(第一章第四、五、六节),崔成国(第二章,第三章),刘福莲(第四章),金建(第五章,第六章,第八章,第九章),朴吉玉(第七章),李泽华(中文部分),校对:朴相洙(韩)、曹允瑛(韩)。

在本教材的编写过程中,编者力求以中国人的角度对韩国进行客观的描述,但由于编者水平有限及时间仓促,教材中难免存在不足之处,恳请各相关高职高专院校和读者在使用本教材的过程中给予关注,并将修改意见和建议及时反馈给我们,以便在下次修订时改进和完善。

所有意见和建议请发往:gzjckfb@163.com

欢迎访问我们的网站: <http://www.dutpgz.cn>

联系电话: 0411-84707604 84706231

编者

2008年6月

차 례

제1부 한국개황

제1장 한국의 상징	3
제1절 국기, 국호, 국가, 국화/3	
제2절 민족, 문자/5	
제3절 자연 조건/6	
제4절 지형/7	
제5절 기후/10	
제6절 행정구역/11	
제2장 의·식·주	13
제1절 백의민족/13	
제2절 음식문화/15	
제3절 한옥/17	
제3장 풍속습관	20
제1절 예의범절/20	
제2절 전통명절/20	
제3절 의례습성/23	
제4장 정치	28
제1절 국회/28	
제2절 행정/30	
제3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33	
제4절 정당/34	
제5장 외교	36
제1절 역사적 제한/36	
제2절 통일외교, 전방위 외교/36	
제3절 한·미관계/37	
제4절 한·일관계/38	
제5절 한·중관계/39	

제6장 경제	41
제1절 발전개황/41	
제2절 신화 창조/44	
제3절 오늘과 내일/47	
제7장 관광	50
제1절 수도권/50	
제2절 충청지방/54	
제3절 관동지방/55	
제4절 호남지방/56	
제5절 영남지방/58	
제6절 제주도/61	
제8장 문화·교육·체육	63
제1절 전통문화/63	
제2절 한류/65	
제3절 교육/66	
제4절 체육/68	
제9장 종교	71

제2부 韩国概况中文大意及补充说明

第1章 韩国的象征	75
第2章 衣食住行	80
第3章 风俗习惯	82
第4章 政治	85
第5章 外交	87
第6章 经济	89
第7章 观光	94
第8章 文化、教育、体育	102
第9章 宗教	104

제 1 부

한국개황



제 1 장

한국의 상징

모든 나라가 자기의 국기, 국호, 국가, 국화를 가지고 있듯이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도 자기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국기, 국호, 국가, 국화가 있다. 그 외에 한복, 한글, 태권도 등도 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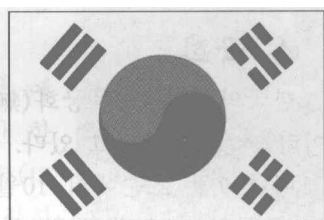
제1절 국기, 국호, 국가, 국화

1. 태극기

대한민국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태극기(太極旗)는 1883년 3월 6일(고종 20년) 처음으로 조선 왕조의 국기로 제정됐고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도안과 규격을 통일하고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고시 제2호로 현행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정식 공포하였다.

태극기는 3대2의 직사각형 흰색 바탕에 중앙은 적색과 청색의 태극도안이 새겨져 있고 사방 모서리의 대각선상에는 건(乾), 곤(坤), 이(離), 감(坎)의 사괘가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다.

태극기는 한민족의 동질성과 순수성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상징하며 우주와 영원히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한민족을 상징한다.



태극기

태극기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현충일 등 주요한 날과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에 게양한다. 특히 올림픽, 월드컵 등의 대형 행사에서는 태극기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한데 뭉쳐 ‘대한민국’을 높이 외친다. 이런 열광적인 응원 모습은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2. 국호

한국의 국호는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약칭은 한국(R.O.K)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조선(朝鮮), 고려(高麗) 등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한국의 명칭 코리아(Korea)는 바로 고려의 발음을 영어로 표기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오~~~필승 코리아” 등 한국사람들의 외침소리를 자주 듣게 되는데 국가(國家)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 국가

국가(國歌)는 나라를 사랑하는 뜻으로 한국 국민이 부르는 노래이다. 한국의 국가 <애국가(愛國歌)>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뜻한다.

<애국가>는 20세기 초엽 민간에 퍼져 있던 가사에 안익태(安益泰 1905~1965년)가 작곡한 것으로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국가로 정하였다.

<애국가>는 모두 16소절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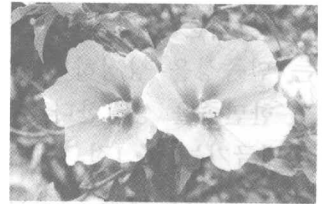
-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 (2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 (4절)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한국사람들은 주요 행사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애국심과 단합심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힘차게 4절까지 함께 부른다.

4. 국화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無窮花)이다.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매년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무려 100여 일 동안 피는 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한(韓)민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같이 해 온 꽃이다. 한민족의 근면성과 순결성, 그리고 강인함이 무궁화의 특성과 유사하다 하여 한국의 국화로 정하였다. 한국의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래처럼 한국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무궁화

현재 한국인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곳에 국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최고 훈장을 무궁화 대훈장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입법·사법·행정 3부의 표상도 무궁화이다. 국장에서도, 한국 여권에서도 무궁화의 그림을 볼 수 있고 호텔과 식당의 등급도 무궁화로 표시하고 있으며, 또한 기차도 무궁화호로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다. 이런 여러 면에서 한국사람들의 무궁화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다.



국장

제2절 민족, 문자

1. 한(韓)민족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이다. 한민족은 몽골족 중에서 새 몽골족에 속하고 언어상 알타이어계에 속한다. 그들은 시베리아의 바이칼호 남쪽에서 형성되어 제4빙기 후반에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만주(滿洲)동부 일대에 내려와 살았다고 한다. 곰을 수호신·조상신으로 숭배하던 토착족으로서 B.C. 2333년에 단군(檀君)이 최초로 고조선(朝鮮)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B.C. 108년에 고조선이 망하자 일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였고 남부지방에서는 삼한[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7세기 중반에 이르러 신라가 3국을 통일하여 한민족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그때부터 언어도 많이 통일되어 가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한민족은 백의(白衣)민족이라 할 정도로 순결하고 순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아낄 줄 아는 예의지국(禮儀之國)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백절불굴의 끈질긴 성격,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그리고 하나로 뭉치는 단결정신 등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2. 문자-한글

‘한글’이란 지금 한국이 사용하는 글자를 말한다. 한글의 자모는 모두 40개로 자음 19자, 모음 21자로 되어 있고 음소문자(音素文字)이면서 음절문자(音節文字)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한국사람이 한글로 한국말을 쉽게 기록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한국은 오랫동안 한자(漢字)를 빌어 한국말을 표기했다. 한자로 한국어를 적는 구결(口訣), 향찰(鄉札), 이두(吏讀) 등이 있긴 했지만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데다가 일정한 법칙이 없어 소리나는 말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인들은 자신의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세종대왕(世宗 25년)이 1443년에 와서 마침내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한글을 만들고 1446년에 반포하여 비로써 언문일치(言文一致)를 이루게 되어 한민족의 언어문자 생활에 일대 변혁을 가져 왔다. 우주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삼재(三才: 하늘, 땅, 사람)와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진 한글은 초성(初聲: 첫소리), 중성(中聲: 가운뎃소리), 종성(終聲: 끝소리)의 3단위로 이루어진다. 발음기관을 본뜬 자음과, 하늘(·), 땅(一), 사람(丨) 등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모음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과학성에 현재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제3절 자연 조건

1. 지리적 위치

아시아대륙 동북부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반도(朝鮮半島)는 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동북부는 러시아와 이어져 있고 동쪽과 남쪽은 동해와 조선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은 서해를 사이 두고 중국의 산둥과 마주하고 있다. 1948년 북위 38°선을 기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으로 분단되었는데, 한국은 조선반도 전체면적 222,300km²의 45%에 달하는 99,600km²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면적의 약 96분의 1쯤 되는 나라이다.



한국의 표준시간은 동경 135°의 동9시구에 속하여 중국 북경시간보다 한 시간 더 빠르다.

2. 인구

한국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7년 10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49,194,085명으로서 인구밀도가 495명/km²에 달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로 수도권 인구는 무려 23,903,785명으로 전국 인구의 절반(48.6%) 가까이 된다.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절반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수도권에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면적 11,730km²를 감안하면 인구밀도가 2,038명/km²나 된다.

인구를 성씨별로 분류하면 김씨가 10,575,382명(21.50%)으로 전 국민 5명 가운데 1명 꼴이었고 이씨, 박씨, 정씨, 최씨 등의 순이다. 이들 5개 성씨와 함께 조씨, 강씨, 장씨, 윤씨, 임씨, 유씨 등 11개 성씨의 인구는 100만명이 넘는다.

한국의 인구성장은 1950년대 후반기에 급속한 성장의 길에 들어서서 1960년에 최고점을 이루었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서부터 인구성장률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0.6%까지 떨어졌다. 이 후 2006년, 2007년에 들어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인구성장률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해외로의 이민(移民)이 늘어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중국 동북으로 약 200만명, 일본으로 70만명, 구소련으로 46만 명이 이주하였고 1960년대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심지어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등지에까지 진출을 하였다. 그중 미국으로의 이민만도 무려 18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 와서 경제 불황, 비싼 교육비 등의 원인으로 제3차 이민열풍을 이루고 있는데 이민상대국은 대부분 중국, 미국이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조선족)은 무려 600만 명에 달한다.

현재 한국 인구의 또 다른 특징은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다. 2000년에 한국은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에 접어들었고, 2005년에는 9.1%, 2007년 10월 말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4,817,699명(전체인구의 9.8%)으로 늘어나 지난해 말보다 260,966명이나 증가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드는 것을 감안하면 지

방 특히 농어촌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65세 비율이 14% 이상)를 넘어 초고령사회(20%)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38.2%로 늘어나 세계평균 16.2%보다 2배 이상 높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3. 자원

한국의 자원(천연자원)은 몹시 빈약한 편이다. 국토 면적이 좁은 데다가 65%가 산지, 그것도 대부분 유림(幼林)이고 근간의 도시건설로 말미암아 제한된 농토마저 줄어드는 추세다. 냇가나 황무지는 더는 개간할 공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 산지나 갯벌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음에도 점점 불어나는 도시건설 확대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의 자급도는 22.3%에 불과).

다행히도 삼면이 바다인 덕택에 여러가지 생선, 미역, 김, 조개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데다가 수산 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으로 수산 양식업은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

지하자원은 석회석 외에 극히 적은 양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현대 공업의 주가 되는 원료인 석유, 석탄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철광석, 구리 등과 같은 광물자원도 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대량의 다목적 수력발전소와 다용량의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오늘날 고속적인 경제성장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POSCO제철, 석유회사 등이 글로벌 경영을 끊임없이 해 온 덕분에 부족한 자원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형편에서 자가용 자동차 이용률이 세계 1위라는 점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제4절 지형

산지면적이 국토면적의 65%나 차지하는 한국의 지형은 평균 해발이 259m밖에 되지 않지만 산지, 고원, 평야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동부에 장엄한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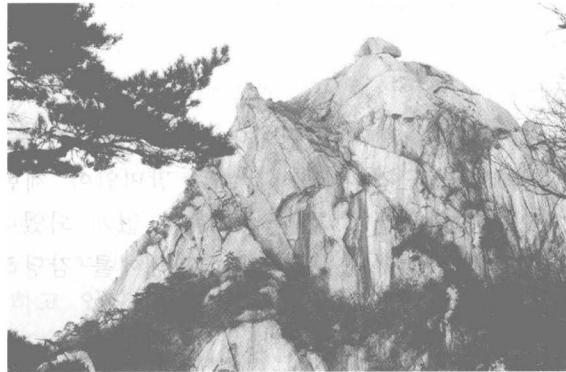
1. 주요 산맥, 산봉우리, 고원

한국의 산맥은 조선반도의 동부에서 남북으로 뻗은 태백(太伯)산맥이 골격을 이루고 거기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광주(廣州), 차령(車嶺), 소백(小白), 노령(蘆嶺) 등의 지맥(支脈)들이 있다.

태백(太伯)산맥: 총 길이 500km, 평균 높이 1,020m이다. 조선의 함경북도 황룡산(黃龍山 1,268m)에서 시작하여 한국의 부산 다대포(多大浦)까지 뻗어 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금강산(金剛山 1,638m 조선) 그리고 설악산(雪嶽山 1,708m), 오대산(五臺山 1,563m), 태백산(太白山 1,549m), 팔공산(八公山 1,192m) 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관령(大關嶺 865m)은 관동 관서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이다.

광주(廣州)산맥: 태백산맥의 철령(鐵嶺)에서 갈라져 서울까지 뻗었다. 여기에는 명지

산(明智山 1,249m), 북한산(北漢山 837m) 그리고 관악산(冠岳山 632m) 등의 이름 있는 산들이 있다.



북한산

차령(車嶺)산맥: 태백산맥의 오대산에서 동남으로 뻗어 나온 차령산맥은 서해안의 서천(西川)에까지 이르는데 최근 산악인과 지질학자의 초보적인 조사에 의하면 남한강에 의해 끊긴 차령산맥은 그 뻗음새나 지질구조 등 여러 면에서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령산맥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계룡산(鷄龍山 845m), 치악산(雉岳山 1,288m) 등이 유명하다.

소백(小白)산맥: 태백산에서 갈라져 나와 동남쪽으로 쭉 뻗어 조선반도 남부의 여수(麗水)반도까지 뻗어 있다. 소백산맥은 그 길이가 350km나 되고 해발이 높아(400~1900m) 많은 이름 있는 산들이 늘어 서 있다. 지리산(智異山 1,915m), 국망봉(國望峰 1,421m), 구룡산(九龍山 1,346m), 가야산(伽倻山 1,430m) 등이 그것이다. 이 곳에는 옛날부터 영남과 호남, 중부지방을 오가며 넘나들어야 하는 이름 있는 고개 마루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선조들의 많은 한과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곳의 고개로는 죽령(竹嶺), 조령(鳥嶺), 이화령(梨花嶺), 추풍령(秋風嶺), 팔랑치(八良峙), 육십령(六十嶺) 등이 있다.



이화령

노령(蘆嶺)산맥: 소백산맥의 추풍령에서 갈라져 나와 서해안 전라(全羅)남도의 무안반도(務安半島)까지 뻗은 작은 산맥이다. 여기에는 운장산(雲長山 1,126m), 모악산(母嶽山 794m), 마이산(馬耳山 667m), 내장산(內藏山 764m) 등이 유명하다.

한라산(漢拏山): 제주도(濟州島)에 우뚝 솟은 휴화산으로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 높이가 무려 1,950m나 된다. 산 정상 화구의 백록담(白鹿潭)은 한국에서 제일 높은 호수로서 그 직경이 약 30m, 깊이가 6m쯤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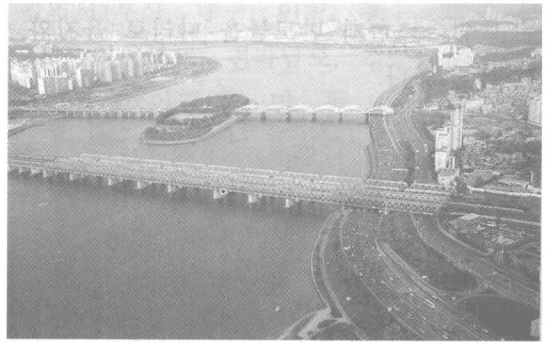
영서(嶺西)고원: 태백산맥, 소백산맥, 광주산맥, 차령산맥 등 사이에 형성된 고원으로서 태백고원, 영서산지라고도 하는데 면적이 4,240km², 평균 높이가 870m이다. 강수량이 풍부하여 남한강, 북한강의 발원지이자 주요 수자원으로서 대량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진안(鎭安)고원: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진안고원은 소백산맥, 차령산맥에 의해 형성되었다. 한국에서 세번째로 긴 금강의 발원지이다.

2. 하천, 폭포

한국의 65%가 산지라서 하천이 많은 편이다. 또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데다가 동서의 길이가 짧아서 강들의 상류는 가파르고 물살이 세다. 그러나 하류에 내려와서는 물살이 느려지고 여러 갈래의 지류들이 한데 합쳐져 큰 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강(漢江): 한강은 강원도(江源道)의 금강산(조선)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강원도 대덕산(大德山)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경기도(京畿道) 양수리(兩水里)에서 합쳐져 서울을 지나 강화만을 통해 서해로 흘러 든다. 한강은 길이가 514.4km인데 통행로의 길이가 무려 330km나 된다. 한강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을 지나는데 유역면적이 26,219km²나 된다. 특히 북한강, 남한강의 상류는 유역이 넓고 가파르기 때



한강

문에 소양강댐, 화천저수지, 청평저수지 등 많은 인공호수들을 건설하여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의 3,000여만 명의 먹고 쓰는 상수도원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을 생산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 강’ 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낙동강(洛東江): 강원도 함백산(咸白山)의 황지(黃地)에서 발원한 낙동강은 길이가 525.15km로서 조선반도에서 두번째, 한국에서 제일 긴 강이다. 항행수로가 344km인 데다가 유역면적이 23,860km²이며 남강, 영강, 금호강, 밀양강, 황강, 내성천 등 22개의 지류와 합쳐져 부산에서 남해로 흘러든다. 낙동강은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시, 경상남도를 거치면서 김해평야를 이루었는데 역사적으로 영남사람들을 먹여 살려 온 젖줄기라 하겠다.

금강(錦江): 한국에서 제3의 강이라고 하는데 전라북도(全羅北道) 장수읍(長水邑)에 있는 소백산맥에서 발원하여 공주(公州), 부여(扶餘)를 지나 충청남도(忠淸南道)와 전라북도의 도계를 이루면서 서해의 군산만으로 흘러든다. 호남평야의 젖줄기로서 금강은 옛 백제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키워 왔다.

이 밖에 전라남도에 자리 잡은 영산강 유역에 있는 나주평야는 옛날부터 벼농사의 지역으로 이름이 있다.

한국의 유명한 폭포로는 강원도 내설악에 있는 대승(大乘)폭포가 있는데 그 높이가